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2010. 10. 3 창간 | Gospel Prayer Newspaper | 2018. 5. 13 ~ 2018. 5. 26 제183호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北 정권 종말 볼 때까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수잔 솔티, 4월 마지막 주 북한자유주간 지정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4월 30일 오후 7시 30분 수잔 솔티 미국 북한자유연맹 대표가 서울역 통일광장 기도회를 찾았다. 올해 15번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북한인권의 '대모'로 불리는 솔티 대표가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4월 마지막 주를 '북한자유주간'으로 지정한 이후 진행돼 왔다.

연맹은 2010년 이래 남한의 북한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김정은 정권 반대와 정치범수용소 해체,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등을 기치로 내걸고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솔티 대표는 이날 기도회에서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고 곧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는 북한주민들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매력공세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한 작전이며 둘째는 북한주민들, 특히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러나 평가 절하된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솔티 대표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던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때봤던 똑같은 시나리오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은 한국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이 계속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GNPNEWS]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에베소서 6:12)

기도 | 하나님, 북한 땅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이 땅과 온 열방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북한 땅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파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북한을 회복시켜주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제공: WMM

– 잠비아의 한 동네에서 만난 꼬마

꼬마 아이는 집으로 난 길을 걷다 뒤따라오는 일행을 돌아보았다. 저기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아빠를 발견하고, 저기가 우리 집이라고 알려준다.

이 작은 아이는 분명히 보이는 집과 집 앞에서 아이를 주시하며 기다리는 아빠를 무한히 신뢰할 것이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황폐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집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나에게도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 하늘 아버지가 집 앞까지 마중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나를 주시하고 계신 하늘 본향이 있다. 하지만 저 천국에 가는 길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삭막한 풍경에 두려워 떨 때도 있다.

그래도 저기 확실히 보이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걷는다. [GNPNEWS]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셀라)"(시편 84:4)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8)

침팬지는 똑똑해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침팬지는 아무리 똑똑해도 신을 찾지 않지만, 인간은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지능이 높든 낮든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일까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를 찾듯, 인간은 자신에게 호흡을 나누어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덮어 버렸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신을 찾았고, 나름대로 신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가 인간을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경험과 느낌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경험과 느낌에 관계없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사실이 아닙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영원히 증명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 앞에서 바로 우리 인생을 누가 창조했고, 왜 창조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을 지옥에서 확인하게 된다면, 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지옥 갈 당신 죗값을 죽음으로 대신하고, 당신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당신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이 찾던 참 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GNPNEWS]

일러스트= 김경선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아프리카
르완다, 2개월 동안 전국 7700여 교회 폐쇄 2면

기획 |
도킨스 등 무신론자, "기독교를 포기하지 말라" 권고 3면

인터뷰 | 강인덕 선교사
"주님이 저도 부르셨지만, 이 어린아이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라"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2개월 동안 전국 7700여 교회 폐쇄

르완다 정부가 지난 3월 교회 지붕에 벼락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던 성도가 사망한 사고 이후, 보건과 안전, 소음 규제 기준을 근거로 수천 개의 교회를 폐쇄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크리스채너티 투데이(CT)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수도 키갈리의 교회 714곳을 포함, 전국 7700여 개의 교회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르완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르완다 남부 냐루구루 지역에서 교회 지붕에 벼락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던 성도 16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빠르게 확대됐다. 폴 카가메 대통령은 사고 직후 열린 회의에서 "르완다에 공장보다 교회가 더 많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교회는 골칫덩이다."라고 발언하면서 새 법안 제정에 불을 댕겼다.

CT에 따르면, 현행 르완다에서 교회 건축은 승인이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급수시설,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집이나 천막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의 교회에서 집회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실제 이번 조치로 규모가 작은 오순절 교파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폐쇄됐다.

▶ 르완다 키갈리의 교회(본 내용과는 관련 없음, 출처: worldwatchmonitor.org 캡처)

르완다 종교관리위원회는 "폐쇄된 교회의 상태는 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며 "예배의 자유는 기준 미달의 건물에서 교인들이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배관 및 주차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인증', '1년 주기의 인증 갱신' 등의 규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지 목회자들은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하다. 가드프리 나군기라 키갈리 새생명성경교회 목사는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염려된다."며 "교회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불법적 관행이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은제이마나 키갈리 교회포럼 대표는 "정부의 결정이 사전 경고 없이 성급하게 내려졌다."며 "폐쇄 조치에 앞서 정부가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가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GNPNEWS]

아시아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조례 문제점 인식 확산

충청남도와 증평에 이어 이번엔 계룡시가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청권에서 인권조례 관련 법규를 자진해서 폐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처럼 충청권에서 잇따른 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이 조례의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확산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계룡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계룡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폐지했다.

이날 오전 의회에서 계룡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동성애 옹호·조장 등을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해 온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외 126개 시민단체들은 환영 성명에서 "계룡시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계룡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며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1년 6개월간 논란이 됐던 이 조례의 폐지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 충남 계룡시의회(출처: 충청일보캡처)

차학연은 "타 지자체도 계룡시와 같은 결단성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강력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GNPNEWS]

유럽

우크라이나에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피살

우크라이나 오뎃사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남상목 선교사〈사진〉가 피살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남 선교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현재 사역중인 오뎃사의 공항 근처 자택에서 온 몸이 줄에 묶인 채 살해당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소식통은 현지언론을 통해 용의자 세 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한 지 10여 년 된 고인은 그동안 현지의 청소년들을 비롯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던 한 기도원에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전에 고인을 만났다는 한 선교사는 "6개월 전 기도원에서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한 이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마음에 부푼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선교사는 "그곳을 찾아가면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며 함께 기도를 드리던 일이 생각난다."며 "현장 선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더욱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4.18 ~ 5.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유럽 8개국, ISIS 선전매체 동시다발적 급습… 사이트 폐쇄

미국과 캐나다, 유럽 6개국 등 8개국 경찰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아마크통신을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선전매체들의 본거지를 급습해 서버를 압수하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거짓을 밝히 드러내시는 주님. ISIS가 대중매체로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고 있음을 봅니다. ISIS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 당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와 진실을 분별하는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고의로 에이즈 퍼뜨린 영국 남성에 종신형

5명의 남성에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고의로 퍼트린 영국인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영국 법원은 18일(현지시간) 대릴 로라는 남성에게 중상해죄라는 5개의 동일한 죄목을 적용해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하나님, 이 일이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이들에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믿는 자에게 피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규모 5.6 지진 발생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28일(현지시간)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현지 기상청이 발표했다고 AP가 전했다. 아직 인명과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황급히 집에서 나와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속히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5월 13일 ~ 5월 26일

5월 13일~5월 19일

5.13~5.19(매일 0시~24시)
▶네팔 포카라 / 복음과기도의집 (김**)
▶강원 안흥 / 복음사관학교 (최*)010-2004-4641
5.14~17(14~20시)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5.15~16(09시~12시)
▶경기 부천 / 새마음순복음교회 (최**)010-4751-0802
5.19(0시~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 (김**)010-4567-8775
5.14~15,17~18(매일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5.14~15,17~19 (매일10:30분~11:30분)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5.15~18(매일10시~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5.17(10시~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5.18(10시~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5.18(10시)~19(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5월 21일~26일

5.21~26(매일0시~24시)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인천 남동 / 참빛사랑의교회 (안**)010-7797-1889
5.22~24(매일0시~24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 (권**)010-7754-1726
5.21~22(06시~18시)
▶전주 완산 / 샤론교회 (진**)010-2638-1440
5.25~26(10시~22시)
▶전주 완산 / 주소망교회 (최**)010-4661-4039
5.21(07시)~25(23시)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010-7439-7020
5.21~22,24~25(매일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5.21~22,24~26 (매일10:30분~11:30분)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5.22~25(매일10시~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5.24(10시~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5.25(10시~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5.25(10시)~26(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도킨스 등 무신론자, "기독교를 포기하지 말라" 권고

무신론자들이 최근 서방국가들에 대해 기독교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캐나다의 컬럼니스트 조나단 반 마렌의 라이프사이트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최근 이슬람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 잇따라 '기독교 포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가디언의 보도를 트윗하면서 내게 그것을 재차 보게 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비로운 기독교의 죽음에 대해 기뻐하기 전에 "항상 간호사를 붙잡고, 더 나쁜 것을 찾게 될까 두려워하라."라는 힐레어 벨록(영국 작가)의 위협적인 운율을 기억하게 했다.

가디언은 영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국인의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며 충격적이게도 16세~ 29세 사이의 사람들 중 70%가 종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도킨스는 그의 태도를 다소 바꾼 것 같다. 그는 한때 국가가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종교를 가진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본질적으로 부모가 가진 권리의 기본개념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묵살해왔다.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향수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서방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이 계몽주의의 세속주의와 기독교계의 유대 기독교 전통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생각을 바꿨다. 기독교가 붕괴됨에 따라 서방 국가의 빈민 지역은 들어오는 이주자,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종교적 전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 유럽에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를 트윗한 리처드 도킨스(출처: lifesite 캡처)

현재 서방 국가에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이슬람이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 문화적 충돌이 커지면서 도킨스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으로서 기독교를 언급했다. 라이프사이트(LifeSite)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기독교를 옹호했다.

"내가 아는 한 건물을 폭파하는 기독교인은 없다. 나는 기독교인 자살 테러범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내가 아는 한, 배교에 대한 벌이 죽음이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 교단은 없다."

이런 말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무신론자 HBO 호스트인 빌 마허가 최근 자주 주장해온 것이다. 그는 기독교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이슬람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허는 이슬람교가 서방에 위협을 하지만 도킨스가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자비롭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한 데 대해 자주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슬람 혐오증'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마허가 TV에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인터뷰 진행자의 얼굴에서 다소 당혹스런 표정을 보는 것이 또 다른 재미였다.

또 다른 유명 무신론자로는 잔인한 여성 할례 수술을 받고 강제 결혼에 직면했던 아얀 헐시 알리가 있다. 그녀는 소말리아의 어린 시절 이후 오랫동안 이슬람을 비판하는 비평가가 되었다. 그녀는 진행 중인 문화 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도들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신론자 알리의 말이 영국 국교회 수장 캔터베리 대주교보다 더 건강한 기독교인의 말처럼 들리는 것에 놀랐다.

지난달 전통주의와 서구 문명의 붕괴를 주제로 토론하기 위해 나의 팟캐스트에 합류한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쿠르튼 경도 자신의 불신앙과 싸워왔다. 그는 내게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근본적인 기초이며 그것이 없이는 서구 문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신이 믿음을 향해 조금씩 되돌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젊은이들에게도 교회로 돌아가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조단 피터슨 박사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예수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성을 믿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기독교는 우리 문화가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몇 주 전, 그의 저서 〈유럽의 이상한 죽음: 이민, 정체성, 이슬람〉에 대한 토론을 위해 나의 쇼에 나온 더글러스 머레이는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서 기독교를 증명했고, 그가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자신을 '기독교 무신론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에서 '문화적 신뢰의 위기'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마도 지난 반세기 동안 버려진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기독교를 버리기로 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스테인이 지적한 것처럼, 많은 무신론자들의 말이 주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건강한 기독교인들의 말처럼 들린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후기 기독교 교회들은 기독교계의 죄 때문에 크게 사과하고 있지만, 많은 저명한 불신자들은 기독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기독교를 버리기로 선택한 사회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어떤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이 우리가 위험에 처한 기독교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할 때, 우리는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GNPNEWS]

조나단 반 마렌 | 캐나다에서 태아살해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캐나다생명보호단체인 바이오윤리개혁 캐나다센터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출처:lifesite.com〉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전도를 위한

복음드라마, 복음에세이 보급

복음과기도미디어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기도신문 외에도 복음드라마와 복음에세이 같은 단편 영상물을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GNPNEWS]

YouTube KR 복음드라마, 복음에세이

베트남, 기독 인권운동가들에게 최대 15년형 선고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최근 6명의 기독 인권운동가들에게 최대 15년에서 최소 7년에 이르는 긴 형기의 징역을 선고했다.

종교자유기도소식(RLPB)에 따르면, 이번 실형이 선고된 인권 변호사 응웬 반 다이(Nguyen Van Dai, 48)와 응웬 트렁 톤(Nguyen Trung Ton, 46)목사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선전을 퍼트린 죄로 체포됐다. 그러나 RLPB는 이들이 독실한 크리스천들이며 용감한 종교자유 옹호자들이라고 소개했다.

다이 변호사는 2015년 12월에 그의 조수 리 투 하(Le Thu Ha)와 함께 체포됐으며, 나머지 4명의 활동가들은 2017년 7월에 체포됐다. 이들 6명은 모두 '인민행정부 전복을 위한 활동 수행'이라는 보다 심각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4월 5일 자 베트남 뉴스(VNS)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행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의 체제 전복 활동을 위장하기 위한 불법 친민주주의 정강을 만든 것으로 기소됐다. 다이는 '주동자'로 몰리면서 15년 형에 이어 5년의 가택연금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자들 중 범행을 인정한 한 사람은 7년 형을 선고 받았고, 리 투 하는 징역 9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11년과 12년 징역형과 3년의 가택 연금을 선고받았다. 고통스러운 부상을 입고 있는 톤 목사는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엄청난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 피의자들의 지지자들은 법원 밖에서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신속하게 제지됐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활발하게 교회 활동을 하는 다이의 부인 부 민 칸(Vu Minh Khanh)은 남편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기소의 불합리, 재판의 부당함, 선고의 강도에 대해 호소했다.

그녀는 "남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리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양심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월 4일 발표된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양심수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97명이나 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지저분한 독방에 감금되거나 주기적으로 고문이나 학대를 받고 있다.

RLPB의 엘리자베스 켄달 대표는 "베트남의 모든 기독교 죄수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응웬 반 다이와 응웬 트렁 톤 목사는 심한 불공정성과 매우 가혹한 선고들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영이 추수의 땅에서, 재판장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분의 종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조선선교열전 (21) – 제주도 편(3) 이기풍 선교사와 윤함애 사모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될 사람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행 22:7)

한국의 첫 번째 파송 선교사인 이기풍 선교사의 별명은 ‘평양의 사도바울’이다.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 바울 사도와 닮아서인지도 모르겠다. 평양성의 포졸로 근무하던 이기풍은 애국심과 정의감이 투철해 양민들을 착취하는 탐관오리와 서양 귀신을 전하여 나라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외국 선교사들을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불량배들을 모아 건축 중이던 교회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다.

어느 날 시장통에서 전도하던 마펫 사무엘(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크게 다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곧 청일전쟁이 일어나 원산으로 피난을 가게 된 그는 그곳에서 외국인 스왈른 선교사가 전도하는 것을 보며 마펫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날 그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중 한 꿈을 꾼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후 청년 이기풍은 스왈른 선교사를 찾아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 스왈른 선교사와 함께 전도활동을 하게 된다. 1903년 이기풍은 그가 돌을 던져 턱을 크게 다치게 했던 마펫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신학을 배우고,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다음 해 제주로 파송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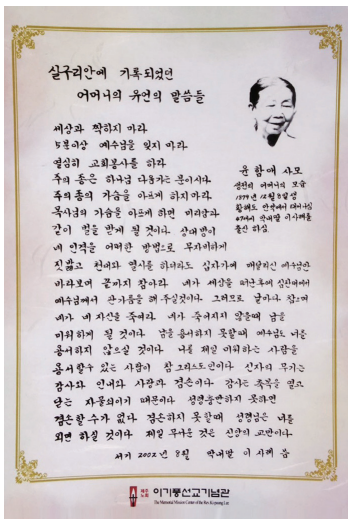
하나님이 준비하신 돕는 배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의 전시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눈길을 뗄 수 없는 전시물이 하나 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텽국 내텬국 사모하난는 쳔당집 지금 차자가오니 영원무궁하도록 주와 갓치 살리라…’

이기풍 선교사의 아내 윤함애 사모가 지은 찬송 가사이다. 이 외에도 자녀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어떤 믿음과 가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 윤함애 사모의 유언을 막내 딸 이사례 권사가 옮겨쓴 글(출처: 이기풍선교기념관)

윤함애 사모는 황해도의 한 진사 집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문밖출입이 어려웠고, 이를 불쌍히 여긴 윤 사모의 부친은 딸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글을 가르쳐 책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윤 사모가 15세 무렵 말라리아에 걸렸으나 당시 치료방법이 없어 오랜 시간 병치레를 하며 죽기만을 바라고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사가 뜬금없이 전해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한 마디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러던 중 어떤 빛이 온몸을 비추고 방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고 난 뒤 굳었던 몸이 풀리며 병이 낫게 되었다.

윤 사모는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을 두고 “양 코베기가 윤씨 처녀에게 손을 대었다.”는 소문이 돌게 되고 양반인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머리를 빡빡 밀어 그녀를 가둬 버린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던 윤 사모는 “땅을 파라”는 음성에 3일 동안 담 아래의 땅을 파 성경책 한 권을 품고 부모님과의 절연을 각오하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보름 동안 고생한 끝에 노숙자 행색으로 평양에 도착하여 마펫 선교사를 다시 만나 주님께 헌신하여 살기로 한다.

주를 위해 독신으로 살고자 결단한 그녀에게 어느 날 마펫 선교사가 결혼을 권했다. 이기풍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처와 사별하고 갓난쟁이 아기로 인해 신학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주를 위해 그가 신학을 잘 마치도록 결혼하여 도우라는 것이었다. 결혼에 대한 마음을 내려두고 있던 윤함애는 마펫 선교사의 말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함애야, 함애야. 네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네가 희생제물이 되어 이기풍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기풍과 가정을 이루게 된다.

윤 사모는 이기풍 선교사의 든든한 동역자로 믿음의 걸음을 지지해 주었다. 이기풍이 평양신학교 과정을 마칠 즈음 제주도 사역지를 결정해야 했을 때, 고민하고 있던 이기풍에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느냐.’며 제주 선교사로 자원할 것을 강권한 것도 윤 사모였다. 이후 윤 사모는 너무 험난한 제주의 사역의 시간 속에서 이기풍 선교사가 흔들릴 때마다 끝까지 순종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윤 사모는 결혼 전 서양식 의학기술과 기초적인 산파기술을 배웠는데, 제주에 내려왔을 때 이기풍 선교사가 전도하러 간 사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산모의 출산을 도운 것이 소문이 나 동네 사람들의 산파 역할을 감당했다. 뿐만 아니라 몹쓸 병에 걸려 죽은 동네 사람의 시신을 정성껏 처리해 주고 부녀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역 등을 하였다.

이기풍 선교사와 윤 사모의 딸인 이사례 권사에게 기억되는 윤 사모의 삶은 헌신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이기풍 선교사가 병환으로 전라도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 갔을 때에도 나병 환자들을 반겨 먹을 것을 내어주며 그들을 섬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섬김 후에는 항상 기도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곤 했다. 이밖에 그녀의 유언장에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그의 신앙이 담겨 있다. [GNPNEWS]

김성옥 선교사

참고문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선교 통신

“무슬림 동생이 복음을 듣고 변한 것을 보고, 복음이 궁금해졌어요”

새봄이 왔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늘 감동하게 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따스한 햇빛 덕분에 새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알바니아에도 디타에 베라(여름의 날-봄의 시작)도 끝나고 여성의 날 행사도 마치고 본격적인 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여성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핑계로 저희 학생들 가족들과 그동안 제가 교제하며 복음을 접촉점을 가졌던 분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이곳은 무슬림권이지만 온건파여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가까이서 복음을 전해보면 씨족사회여서 여성들이 쉽게 교회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자유롭게 외출을 하지도 못합니다. 겉으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알바니아지만 보이지 않는 제약이 참 많습니다. 시골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처음 모임 때 13명이 모였고 지난주에는 7명이 모였습니다.

처음 모임 때 자기소개 게임, 플로린다의 간증과 짧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거부 반응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참 좋았습니다. 한번은 저와의 관계 때문에 예의상 참석했겠지만 두 번째 모임 때는 몇 분이나 참석할 지 기도하며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학생들 중 사촌지간인 아이들이 네 명 있는데 그 가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제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선교사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파비온의 누나들이 어렸을 때 한 선교사가 가르치던 영어 교실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무슬림들이지만 동생이 복음을 듣고 변한 걸 보고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독일에 있을 때 교회에도 나갔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준비시킨 영혼들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성모임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고 그 영혼들이 구원의 통로로 귀히 쓰임 받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선교현장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

여성들이 쉽게 교회에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도서관은 주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데리고 오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커피도 대접하고 여성들을 위해 쿠킹 클래스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갖고 아울러 여성들이 행복한 엄마들이 되어 즐거운 삶이 되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참 안 변하는 것 같고 느리고 더디 가는 것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열매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선교사는 아닌지 자책도 하고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 그 자리가 이곳임을 알기에 작은 일에 감사하며 버티고 살아냈습니다. 새봄을 통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격려로 느껴집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그분이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GNPNEWS]

알바니아 = 김종섭·김경애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저도 부르셨지만, 이 어린아이도 부르셨어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강인덕** 선교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강인덕 선교사(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를 만났다. 그는 복음을 만난 이후 다양한 선교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결론났다는 자신감으로 ‘주님, 어디든지 불러주세요.’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

-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헌신하게 되셨나요?

“당시 저의 고민은 선교사로서 살기로 결정했는데, 저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더군요. ‘주님, 저 같은 것도 받아주시나요?’ 그때 주님이 너무나 분명한 부르심과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sham, 이하 쉠)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게 됐어요. 저는 어디든지 아멘이라고 주님께 고백했지만,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된 절망 가운데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만 붙잡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 헌신한 이후, 부르심에 대해 확정하는 시간은 있었나요?

“헌신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곳에 오셔서 리더 선교사님께 퉁명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때는 선교사님이 ‘이것저것 형제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요.’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질문이 선교사님과 제 마음 안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주님이 선교사님과 제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곳에 온 아이들은 먼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예요. 하지만 저의 사랑으로는 이 슬픔과 상처를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껴요. 이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지도 않는 진리를 선포한다면 힘이 없고, 믿어진 만큼 능력이 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기에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가장 큰일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이곳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신생아에서 7세짜리 어린이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쉠에서 주관하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받았던 1년의 시간은 자신이 생각했던 틀이 부서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 훈련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일 년 동안 참 많이 배웠어요. 믿음에 대해서, 순종, 사랑, 예배, 묵상.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 시간을 내서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말 집중해서 깨달을 때까지 머무르는 게 다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아침 시간이 정말 분주한데, 묵상은 고사하고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보기도 힘든 게 대부분이에요. 예배시간에는 묵상 내용을 나눠야 하는데 정리도 안 된 채 나누려니 내가 뭘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묵상에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날은 제가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걸까?’ 계속 중얼거리게 되고요. ‘아, 내가 생각했던 묵상이 끝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묵상을 잘 정리해서 나누면 그걸로 끝나는 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난 묵상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 더 오히려 주님을 더 알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더욱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었다. 이전에 생각지 못한 영역과 간과했던 영역의 죄에 대해서 더 깊게 보여주셨다.

- 주님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훈련과 사역을 하면서 머리로는 잘 알 것 같았는데 삶은 이론처럼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복음이 실제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현장에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 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었죠. 여기서도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느낌, 처음이었어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훈련 다 받고, 부르심 받아 온 자리에서까지 죄에 넘어지고, 나 뭐하는 걸까?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고 모든 자책과 죄책에 어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더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지난 일 년 동안,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떠나려고도 했어요. 선교사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자격 없는 내 모습에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한 가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나조차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털썩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구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하나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룻기 말씀 주시면서 날개 그늘 아래 머물라고 하셨어요. 믿음 좋지 않아도 도망만 치지 말고 머물러만 있으라고요. 그러면 온전하게 상 주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라고. ‘네 주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은혜로 쉠 선교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의 연속이었다. 소방학과를 나온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으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당연히 처음이었고 망치질도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랐다. 단지 그 자리에서 순종을 배웠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 아이 기저귀를 능숙하게 갈아주고 있는 강인덕 선교사

아이 돌보는 것도, 망치질도 제대로 할 줄 몰랐다

- 현재 단체에서 어떤 영역을 섬기고 있나요?

“저에게 맡겨진 역할은 육아, 시설 관리, 그리고 유아교실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게 저한테는 부담이었어요.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못해요, 안돼요.’라고는 할 수 없더군요. 놀라운 것은 제가 뭘 부탁받으면, ‘네’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기뻐서 하는 순종이면 제일 이상적이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순종하면서 기쁨을 배우게 됐어요. 할 수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선교사님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저 ‘네’하고 순종했죠. 처음 해보는 모든 작업에 사실 부담감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그 기쁨이 점점 커졌어요. 싱크대 물이 새면 잘 모르면서도 일단 뜯어보고 찾아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단체의 형제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세요(쉠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센터에는 여러 선교단체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있다). 그럴 때마다 재밌어요.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완전한 결과물을 보는 기쁨도 있어요.”

세상은 보통 결과물을 보고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신다. 감사하게도 함께하는 식구들도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기에, 결과에 대해 누구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비록 처음에 원하는 모습으로 종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달려가기 때문에 더 자유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다.

-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어떤 때가 힘이 들었나요?

“순종하면서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현실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었어요. 친한 친구에게서도 취업하기 힘들어서, 소방관 되기 힘들어서, 종교라는 이름에 의지하고 싶어서, 현실 도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야, 난 구원의 감격으로 하는 거야!’라고도 못했어요. 오히려 ‘어? 그런가?’하며 주님을 따르는 내내 괴롭고 의심하고 힘이 들었어요. 순간순간마다 되돌아가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니까 기쁘지 않아도, 내가 현실도피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이 결국은 이 부르심의 완전한 기쁨을 알게 해주시더군요. 또 살면서 진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많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도저히 못 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이 우선이냐 순종이 우선이냐를 떠나서, 주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순종하면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순종하면 주님은 순종의 기쁨을 부어주신다

- 아이들을 가르쳐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모든 영역이 부담인데, 유아교실은 특히 그렇죠. 애들과 같이 노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2)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라”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다. 오만한 지성을 가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악을 쓴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기 위해 ‘지구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 우주를 탐방하며 애를 쓰지만 지구와 같은 별은 어디에도 없다.

온 우주 그 어느 별에도 지구의 하늘 같은 대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을 잉태하고, 때를 따라 생명을 꽃피우는 살아 있는 땅은 그 어느 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바다는 얼마나 신비한가! 공같이 생긴 지구의 2/3를 바닷물이 덮고 있지만 쏟아지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지도 않는다.

일러스트= 노주나

낮과 밤이 교차하고, 춘하추동 사계절이 기가 막히게 순환한다. 또 계절을 따라 모든 생태계가 반응하고, 계절의 독특한 특성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편 기자는 이 아름다운 창조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시 19:1~4)

아름다운 창조의 신비

창조하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 정해 두신 그대로, 낮과 밤은 일정하게 교차하고 있으며,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고 있다. 한 번 정해진 그 질서는 어디에도 매뉴얼 한 권,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전해주는 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은 날에게 전해 주는 말씀, 밤은 밤에게 알려 주는 지식이 온 땅에 통한다. 온 우주 만물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 정말 신묘막측(神妙莫測)한 창조의 섭리가 아닐 수 없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태양은 그 속에 빛과 열기와 생기를 지닌 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처럼, 창조된 이래로 그 에너지가 전혀 시들지 않은 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태양을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두셨는지 아는가?!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져도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신비(神祕)한 창조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들임에 틀림없다. 답답한 혼돈 속에서, 절망하며 안타까워하는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라! 사랑스러운 신부를 맞이한 신랑처럼 넘치는 기쁨과 만족으로 당신의 신부 된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다!(2016년 12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2
Life in the Gospel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10,000원)** 이상 주문 가능

복음과기도미디어 “오직 믿음” 시리즈

2017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오직 믿음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는 믿음!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되는
오직 믿음.
두려운 경고이자
눈물겨운 감격스런 초대가 여기 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오디오 CD(2장 한세트) 6,000원
약 20분씩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교육은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

는 것과 교육은 전혀 다르더군요. 애들한테는 정말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고, 진리로 사랑으로 함께해야 하죠. 5~7세의 6명의 아이들과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세 시간 반 동안 함께 하는 시간인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뭘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감사하게도 함께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셔서 많이 배우고 있지만, 어떻든 저는 아무 기초도 없으니까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간단한 것이겠지만, 제게는 그런 간단한 것을 생각해 내는 걸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소방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불 끄는 일은 너무 쉬워요. 연소물, 온도, 산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절대 안 붙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원리를 다 모르면서도 주방에서 불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든 순종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있어도 순종하죠.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정리된 순종의 걸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H.M.

〈다음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쉠 선교사 수료식에서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삶

“하나님은 무능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신다”

일러스트= 김효정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고 싶다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다음세대를 섬기는 교육선교사로 인도하셨다. 처음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마냥 기뻤다. 그러나 막상 부르신 자리에 오고 나서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능하다는 것이었다.

학창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내가 학교 안의 여러 역할을 거쳐 급기야 ‘영어’라는 생소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새롭게 개척된 신설 영어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라는 말씀으로 함께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영어 성경을 펴면 ‘아악!’ 소리가 났다.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내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미안하지만, 난 너희들을 몰라.’ 가끔 말씀을 나누거나 대표로 기도해야 할 상황이 올 때 하고 싶은 말 대신 눈물이 먼저 나온다.

아침 식사 후엔 저학년 아이들과 영어 유치원처럼 놀이와 대화를 하며 공부한다. 점심 식사 후엔 고학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장이 열린다.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깃발을 올려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맡은 구역에서 깃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주님’을 한 번 부른 후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최대한 쉬운 말로 문제를 설명해 보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 가끔 ‘이해했어요?’라고 묻는 말조차 아이들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와 학생은 서로 손짓, 발짓하며 소통을 하기도 한다. 그 와중에 다른 선생님들이 내 근처에 오면 긴장이 된다. 내 질문이 적절한지, 엉성한 영어가 들리진 않을까 생각되어 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도 한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 질문을 했다. 다른 지체는 다음 단계로 갔는데 자신은 왜 안 되냐는 것이었다. 전심으로 공부했던 학생이었기에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결과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이다. 레벨을 올리고 싶은 이유를 물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단계를 공부하고,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경쟁하듯이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단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공부하면 그 내용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이 일로 내게 말씀 하시는 것 같았다.

“난 네게 잘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 넌 내가 뭘 원하는지 아니?”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못 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내가 잘하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세속적인 가치가 내게 이토록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랐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치로 살면서 사람은 모두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얼마나 부정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나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전심으로 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무엇을 잘하기 위함도, 성취하기 위함도 아닌 그저 주님이 내 삶의 이유다. 이 때문에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체들에게 두려움 없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다.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주님을 누리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이런 영광을 전달할 다음세대 선교사들로 세워주시길 더욱 구하게 되었다. 오늘도 펼쳐질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GNPNEWS]

이유정 선교사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부흥을 위하여

기름 아끼려 무동력 주행 관광버스 사고… 강냉이 1kg 위해 10살짜리 자식 동원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름을 아끼려다 버스가 전복되고, 어린 자식을 석탄 작업에 동원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22일 황해북도에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기름을 아끼기 위해 내리막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행한 것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중국 내 여행사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들에서 ‘관광객 버스사고는 운전자가 무동력 주행(타력주행)을 했기 때문’이며 ‘거기에 운전미숙이 더해져 차가 전복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무동력 주행은 기어를 중립에 두고 시동을 완전히 끄는 것을 말한다. 장거리 운행 시 연료비 절약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오직 제동을 풋(foot) 브레이크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내의 한 탈북민은 “북한에는 산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에서 무동력 주행을 많이 한다.”며 “이렇게 기름 값이 긴장될(오를) 때는 이런 위험을 알고도 간과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2일에 사고 현장 부근에는 폭우가 쏟아졌다는 점도 대형사고 발생 요인으로 보인다. 40명 가량이 타고 있는 버스가 빗길에 타력 주행을 해 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탄광 노동자들이 석탄 값 하락으로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하자 10살짜리 아이들까지 석탄 배낭을 짊어지고 돈을 벌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엄마하고 같이 나와 석탄을 캔다.”며 “조그만 아이들이 하루에 15~20kg짜리 석탄 배낭을 한 다섯 번 정도 짊어진다.”고 덧붙였다.

▶ 북한 주민을 태운 트럭과 석탄을 나르고 있는 트럭(출처: dailynk.com 캡처)

현재 평안남도의 한 탄광지구에서 15~20kg짜리 석탄 배낭은 개당 1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렇게 하루에 석탄 배낭 5개를 내다 팔면 수익으로 강냉이 1kg(2000원)을 살 수 있다.

석탄 수출이 활발했을 때에는 탄광에 투자한 개인업자들이 탄광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고 석탄을 캐다 팔기도 했지만, 지금은 석탄 수요가 줄어든 데다 수출도 막히면서 탄광에 투자해 돈을 벌려는 업자들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밥벌이를 하던 탄광 노동자들은 자연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석탄 값마저 하락하면서 벌이가 변변치 않자 결국 어린 자식들까지 데리고 나와 하루 종일 석탄을 캐다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낮에 석탄을 캐다 파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새벽 3시부터 나와 석탄을 캐 집에 놔두고, 밤이 어두워지면 그 석탄을 들고 나와서 집집마다 거래를 하기도 한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GNPNEWS]

복음의 능력

담대한 사람

현재 교회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란 담대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우리에게 부흥과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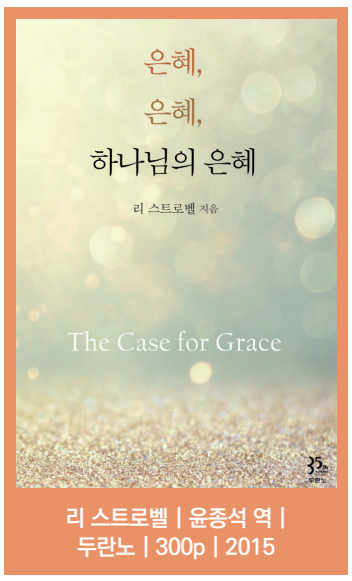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담대히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 대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약한 사람들은 본능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행동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상황의 압박에 못 이겨 부득불 행동하지 않는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 [GNPNEWS]

〈철저한 십자가(2011), A.W.토저, 규장刊〉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리 스트로벨의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다



리 스트로벨 | 윤종석 역 | 두란노 | 300p | 2015

이 책은 '예수는 역사다'로 잘 알려진 목사 리 스트로벨이 '은혜'를 찾아 여행한 이야기이다. 국경과 세대, 문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인터뷰 한 내용을 엮었다.

한국전쟁 속에 엄마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혼혈 고아에게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인 사랑으로 찾아온 은혜. 그러나 이 아이는 차디찬 세상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조건 없이 다가와 더럽고 병든 그녀를 입양하려는 사랑을 향해 침을 뱉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다. 우리 또한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따뜻한 손길을 얼마나 많은 변명과 무시로 거부해 왔던가.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고, 끝까지 파고드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비로소 이 고아는, 그리고 고아와 같았던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품으로 뛰어든다. '내 아버지셨군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대해주셨던 거군요. 난 당신의 딸이군요. 영원한….'

지긋지긋한 죄와 중독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과 최선으로 사역하다 탈진한 라스베이거스의 목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그분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 편에서 더 이룰 것이 없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갚아보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 그분과 함께 사는 모든 과정도 오직 은혜이다.

착하고 성실한 모태 신앙으로 성장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에 목마르지 않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오직 은혜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으로 유능한 교수가 된 헤이즌 박사가 존재적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일을 은혜 아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만나는 일은 스스로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떤 고행도, 행위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큰 아들의 강퍅한 마음을 돌이키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원래가 불공평한 은혜, 공평했다면 결코 내게는 찾아오지 않았을 그 선물을 우리는 바라지도 못하던 중에 받았다. 배경과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한 매임과 어둠 속에 버림받았던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어 주신 획기적인 사건.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지 벅찬 감동으로,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던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이 은혜는 다른 누군가를 또다시 살리는 통로로 서게 하고, 가장 큰 배신과 치욕을 용서와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끌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영혼의 불을 켠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로 남겨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이면 충분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

이 책에는 이렇게 은혜 입은 자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고백이 가득 담겨있다. 어찌 보면 특별한 상황을 통해 주님을 경험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모두 다 우리 이야기이다. 그렇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다.

세계의 어떤 종교에서도 값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는 찾을 수 없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전부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과 영원을 송두리째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이 아름다운 선물을 어찌 내 안에만 담아두겠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은혜. 오 주님, 이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가 아무도 없도록, 우리를 통해 은혜의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GNPNEWS]

이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너 혼자인 것 같니? 아니야.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로는 크든 작던 항상 공동체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인 시간은 거의 없었고 항상 지체들과 '함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까지 일곱 식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혼자'인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첫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숙소에 홀로 남아 아이를 돌보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전 공동체와 다르게 사역공간과 숙소가 분리되어 있어 저를 제외한 다른 지체들은 모두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모두가 퇴근하기까지 '혼자'인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지만 홀로 식사를 하고 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처음엔 이전에 지체들과 함께했을 때처럼 밥 먹는 것도, 예배도, 육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은, 혼자 있으니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사역의 모양과 공간만 바뀌었지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라며 애써 괜찮은 척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느라 밥을 먹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의지와 애씀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실상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나를 홀로 두시나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서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배 선교사들과 함께 두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배울 수 있고 아이도 돌보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눈 감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저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온종일 대화할 상대도 없다고요."

일러스트= 이수진

기도를 빙자한 원망과 불평의 눈물 섞인 자조를 주님은 잠잠히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반복되어 갈 때 주님은 아이에게 말하는 내 입술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가 자는 틈에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자다 깬 아이가 큰 소리로 울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얼른 달려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네 바로 옆, 주방에 있었어.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엄마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아. 그러니까 놀라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울지 않아도 돼."

스스로 그렇게 아이에게 말하면서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하는 그 말을 주님은 내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셨습니다. '너 혼자인 것 같니? 아니야.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늘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여기 있어!'

그제야 눈에 보이는 상황에 치여 임마누엘 주님을 보지 못하던 내 마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외쳤던 말,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간다."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도 내 마음이 어두워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함께 있어."

죄인인 나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켜보느라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하는 그때도, 닥친 상황을 불평하며 혼자 울던 그때도, 대충 차린 밥상 앞에서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홀로 아이를 돌보지만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아빠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GNPNEWS]

김지혜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4. 20 ~ 5. 2 (가나다 순)

개인

강종채 김경선 김미선 김성훈 김애심 김영수 김장일 김혜신 박숙자 박승은 안민자 안은경 안현숙 우 석 이남준 이복길 이은주 이정희 임향주 조경미 조명숙 조형광 주유순 최근희 최정숙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망우제일교회 문광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열매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평안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